

스웨덴

신문에 부고광고를 할 때 사용되는 詩에 대한 저작권료도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마련

박은정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석사)

스웨덴에서는 詩를 이용하여 가족, 친지 등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부고광고를 전하는 것이 오랜 문화로 정착되어 있음. 그러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스웨덴장례식협회와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1년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료를 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스웨덴 부고광고

- 1910년대부터 스웨덴에서는 친인척 등 부고를 전할 때, 그림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詩를 삽입하여 신문에 알리기 시작함. 이런 부고광고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고, 신문지면으로 시작된 부고광고는 2007년부터는 온라인상에도 (familjesidan.se)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스웨덴장례식협회와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의 합의 배경

- 이용자들은 부고광고를 전할 때마다 詩나 문학작품의 일부분등을 이용하였으나, 정작 저작권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권리행사 및 저작권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고, 저작권료 지불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Administration av litterära rättigheter i Sverige, ALIS)^{<1>}는 지속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였고, 스웨덴장례식협회(Sveriges begravningsbyråers förbund, SBF)^{<2>}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경과한 詩나 성경본문을 사용할 것을 장려함. 그러나 이용자들의 詩나 문학 작품을 이용 빈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 두 단체는 1년 전부터 詩, 문학작품의 일부 구절 그리고 노래가사 일부분등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9월 초에 저작권료 보상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두 단체의 합의 내용

- 주간신문, 웹사이트 familjesidan.se 및 장례식 웹사이트에 이용되는 詩와 詩 일부 구절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스웨덴장례식협회에서는 저작물의 사용빈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저작권료가 배분될 예정임,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기준을 제시하기로 합의함.
 - 현재 부고알림광고는 평균 3750kr(약 46만원)로, 이번 합의로 인해 100~130kr (1,200원~1,600원)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스웨덴문학저작권자협회는 스웨덴장례식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장례식단체들과도 유사한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1> 스웨덴 문학저작권자협회로서 스웨덴작가협회, 스웨덴기자협회, 스웨덴교과관련저작자협회와 스웨덴작가협회를 대변하고 있음.

<2> 스웨덴장례식협회는 1922년 설립한 이후, 스웨덴 전지역에 463개의 장례식관련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스웨덴 장례식 관련 단체의 약 50% 정도 가입되어 있음.

- 합의안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다만 광고비 상승문제로 인해 광고를 올릴 때 詩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두 단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사용빈도에 따라 두 단체의 합의내용은 재조정될 수 있다고 함.

평가 및 전망

- 부고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부고광고부분에서도 올바른 저작권이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 참고 자료

<http://bitly.kr/fzqVGKy>

<http://bitly.kr/nMFkAwi>

<http://bitly.kr/ySRUURI>

<https://www.begravningar.se>

<http://bitly.kr/s2ieWee>